전주시, 탄소섬유 국가산단 재추진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종합평가점수 0.446 통보

전주시가 지역특화산업인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4일 조봉업 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탄소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가 지역특화산업인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한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점수를 0.446으로 기재부와 LH공사에 통보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종합평가 점수가 0.5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는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B/C) 분석에서 기준치인 1.0에 근접한 0.97로 평가됐지만, 수익성을 평가하는 사업수익(PI) 평가(0.94)와 정책성 등을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0.446으로 나타났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된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KDI와 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활동에 나섰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비용편익(B/C) 분석에서 기준치인 1.0 이상으로 높이고 종합평가의 경우 0.5 이상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수정·보안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획부지면적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중 산단 내 입주대상 업종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규제프리존에 지역전략산업으로 포함된 탄소산업과 연계해 규제 특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는 탄소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정과제이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2월 지역특화산단으로 지정한 전주 탄소섬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2977억원(국비 71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267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 84만2000㎡ 부지에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6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한 상태로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약 1조489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6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지역아동 호흡기 건강 책임진다

청풍로하스 - 전주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업무협약

전주시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아동들의 호흡기건강 확보에 나섰다.

전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인 ㈜청풍로하스(대표 박정원)는 지역 아동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시장실에서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이옥자)와 아동건강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전주시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청풍로하스는 냉·난방기 전문 분해 살균·세척 기업이다. ㈜청풍로하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 전역 66개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기를 분해 살균·세척,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호흡기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청풍로하스가 원활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 기술력을 홍보하는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옥자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그동안 냉·난방기를 전문 분해살균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냉·난방기를 쾌적하게 관리해 아이들의 건강 지수도 향상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정원 ㈜청풍로하스 대표는 "냉·난방기 분해살균사업은 특성상 여름과 겨울철에 집중돼 평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 전주시 내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면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청풍로하스를 비롯해 전주시 65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 독립 순환경제 구축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들이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택시 친절서비스 극대화 추진

택시 친절기사로 선정된 강희연씨 등 10명에게 시장 표창

전주시는 4일 시장실에서 '2016년 3/4분기 택시 친절기사 표창' 시상식을 개최하고, 강희연 씨 등 개인택시 친절기사 10명에게 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택시 친절기사 표창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친절 서비스 정착과 모범 운수종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시민들의 택시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개인택시 친절기사 11명, 6월 일반택시 친절기사 18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표창을 받은 택시 친절기사들은 전주시에 등록된 개인택시 운전기사 중 전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승객을 친절하게 응대한 모범 운전원들이다.

30년간 무사고로 택시를 운행해온 손치문 친절기사는 항상 청결한 차량 상태를 유지하고 지난 1월 차내에 승객이 두고 내린 중요한 분실물을 인근 지구대에 맡겨놓아 승객이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선행이 인정됐다. 또 34년 경력의 김형호 기사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및 친절한 택시 만들기' 거리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평소 고속터미널과 전주역 등 택시 이용객이 많은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를 하는 등 선행이 인정돼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는 승객 응대태도와 운전태도, 복장상태, 교통약자 배려, 안전운행 여부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책정하고, 시민제보와 직원 현장탑승 점검, 택시조합 추천 등을 종합해 택시 친절기사를 선정하고 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천년전주 콜센터(222-1000) 또는 120 생활민원 전화, 전주시 시민교통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친절사례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장시간 운전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상황에서도 교통캠페인 참여에 솔선수범하며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친절기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전주시의 중요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해 다른 기사들의 모범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택배상자 훔친 3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4일 편의점에 보관 중이던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5시37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편의점에서 보관 중이던 B씨(36)의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택배 상자 안에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남녀속옷 세트가 들어 있었다.

경찰은 편의점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당시 A씨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용한 카드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A씨를 붙잡았다.

/김영재 기자

기사제보 288-9700

한국민속예술축제 전주 개최 사전행사 '꽃놀이 난장' 공연

9일~15일까지 도내 일원서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행사 '꽃놀이 난장'이 오는 9일~15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등 도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4일 시에 따르면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오는 13일~16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사라져가는 대한민국 민속예술의 발굴·복원을 통해 세계적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유서 깊은 민속예술축제로 28년만에 전주에서 이 축제가 열린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사전행사인 '꽃놀이 난장'은 축제 개최에 앞서 전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문화행사 및 전통시장을 방문해 호남지역권 농악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꽃놀이 난장에서 공연하는 연희단팔산대는 오는 9일 진안오일장과 전주모래내시장을 시작으로 10일 익산북부시장과 전북도청, 11일 임실오일장과 익산금마시장, 13일 전주한옥마을, 14일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15일 전주한옥마을 등에서 차례로 열린다.

공연은 장소의 특색에 따라 길놀이와 판굿, 팔도 민요 등 다양한 전통연희를 펼칠 예정이며 관람객에게는 부채 등 기념품을 증정하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즉석에서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이벤트가 진행된다.

꽃놀이 난장에서 공연하는 연희단팔산대는 1970년대 이후 맥이 끊겼던 여성농악단을 부활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만들어진 단체로 소리와 춤, 기악, 풍물을 아우르는 공연을 지향한다. 전국 전역에서 유랑 판굿 공연을 펼친 연희단팔산대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해외무대에서도 활동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지난 8월과 9월 한국전통문화전당 등에서 8차례 진행된 꽃놀이 난장 공연을 통해 전주시민들에게도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영재 기자